

해설이 있는 화요일음악회

4월 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향·김혜미·김관현씨 협연

매월 첫번째 화요일 시민들을 찾아가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의 '해설이 있는 화요일음악회'가 오는 4월 1일 오전 11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임흥규 부지휘자 지휘와 해설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시향 단원들과 함께 소프라노 김혜미, 바리톤 김관현씨가 협연한다.
이날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하이든의 '세레나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김동진 '신 아리랑', 조두남의 '뱃노래' 등이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요일예술무대 '봄이 오는 소리'

4월 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예회관이 주최하는 화요일예술무대 '봄이 오는 소리'가 4월 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예술가곡보급연구회가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금수현 곡 '그네',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 이흥렬 곡 '꽃구름 속 에', 이수인 곡 '내 내맘의 갈뿔', 김규환 곡 '남이 오시는지', 김동진 곡 '목련화' 등을 들려준다.
출연자는 최경원·김성기·김홍석·이경은·윤소영·최재훈·이현숙·김근배·강숙자·임영민·권현씨다. 문의 010-4125-299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욱)는 '4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거짓된 진실' 등 10종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10종 중에는 이복형제가 히말라야 출라체를 함께 등반하는 내용을 다룬 박민소 소설 '출라체'(푸른숲), 사회 곳곳에 내재한 증오와 위선의 문화를 비판하는 '거짓된 진실'(데리 젠스 지음·이현정 옮김·아고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체험한 기부문화에 이야기한 'Giving'(김태훈 옮김·물푸레)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광주시립미술관, 인사동에 분관 계약

지역 작가 중앙 진출 돕는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서울 인사동에 미술관 분관(이하 인사동 갤러리) 임대 계약을 맺고, 지역 작가들의 중앙 화단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시립미술관은 30일 "서울 인사동 미림미술재료백화점 2, 3층(260㎡)을 임대해 4월1~2010년 3월31일까지 인사동 갤러리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오는 6월 개관할 예정이며, 연중 180일가량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된다. 또 전시 기획을 돕기 위해 학예사 2명을 파견하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타지역 작가들에게도 대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개관에 맞춰 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개관전 등도 준비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08 국제 현대미술특별기획전' 김 중 일 실행위원장

"농촌지역 문화 활성화 물꼬 텅으면"

"산진곡은 대도시와 농촌의 문화 장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촌은 변변한 미술관도 없을 뿐 더러 설령 있다 해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08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이 농촌지역 문화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1~7월31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관장 조규일)에서 열리는 '2008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이하 국제현대미술전)'을 기획



4.1~7.31일 보성군립백민미술관
한·미·일·중·불 5개국 88명 참여

한 김종일(67·전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실행위원장은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농촌의 문화 소외 해소에 두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성군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의 타이틀은 '아름다운 미술관 가는 길'.
평소 미술관 나들이가 쉽지 않은 농촌지역민들을 위해 광주 등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선보인다. 재미작가 강태웅씨를 비롯해 미국의 엘렌 콜맨, 프랑스 에드워드 지프, 중국의 왕가중, 일본의 소코 미키 등 5개국 88명이 참여한다. 전통적인 유화, 수채화, 판화, 드로잉에서부터 사진, 설치, 미디어 아트까지 각 장르를 모두 망라했다. 군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로서는 규모가 크며, 내용도 알차다.
이번 전시를 위해 김 위원장은 기획 단계에서

맞는다"며 "이같은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이들 커미셔너들이 역동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엄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전시가 열리는 백민미술관이 지난해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의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대원사 벚꽃길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골 미술관 편견 깨기 위해 최선

전시회 기간 어린이 사생대회도

전시 기간 동안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사생대회 등 미술교육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그는 "도시에서 가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전시회를 가까운 미술관에서 볼 수 있어야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의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에 집중했던 전시회 등 국제 미술 행사를 농촌에서도 지속적으로 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김 실행위원장은 광주시·전남도전 심사위원,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국내 미술계의 대표적인 미술 단체인 (사)에쁜것의 창립 멤버로 50여년 동안 광주 현대미술을 견인해왔다. 지난 2006년 40여년 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재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수채화가' 김효삼씨 7번째 개인전

4.1~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남도의 자연 풍경 40여점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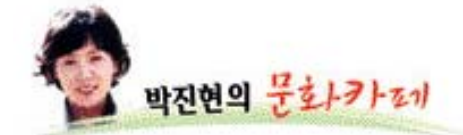
수채화가 김효삼씨가 4월1~7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일곱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남도의 빛'을 주제로 무안, 장성 등지의 풍경을 경쾌한 톤으로 그려낸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시골 마을의 흙벽을 타고 피어나는 작은 꽃의 묘사에서부터 역사의 굴곡을 간직한 채 도도히 흘러가는 영산강 등 남도의 자연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특히 빨강, 노랑 등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한 색감이 화려하다.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동백꽃은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고, 처마 밑에 매달려 말라가는 꽃망울은 농촌 마을의 한가로움을 전해준다. 눈 덮인 백두대간의 웅장함과 활짝 피어선 철쭉의 풍광도 정겹다.
또 색조가 밝고 싱그러워 들뜬 보리와 나무들이



'남도의 빛'

알다시피 새싹을 튀워 파릇파릇하게 가는 먼 산의 대비는 수채화에서 느낄 수 있는 봄의 담백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김씨가 여행지에서 그린 앙코르와트 등 외국의 풍물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김효삼씨는 국제미술일본전, 광주미술현장전 등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한국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광주전남수채화협회, 소나무 창립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엔날레 연구실은 옥상옥?

베니스, 상파울루, 이스탄불, 싱가포르...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가운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단연 돋보인다. 지난 1895년 첫선을 보인 세계 최고(最古)의 비엔날레는 110여 년이 흐른 지금 '최고(最高)의 미술축제'로 성장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매년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전위성으로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이사회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이사회라고 해서 당연치, 선출직 등으로 구성된 '직능별 조직'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적인 전시기획자 등 5인조로 구성된 이사회는 감독선임에서부터 정제성, 장기발전방안에 이르기까지 베니스 비엔날레의 실질적인 브레인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도 파워 면에선 둘째 가라면 서럽다. 지난 1951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베니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그들만의 축제'에 반기를 들었다. 제3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상파울루 비엔날레는 베니스의 자리를 위협하는 '남부 2'로 부상했다. 이 또한 10인 미만의 전문가 그룹으로 짜여진 이사회의 힘이 크다.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역시 이사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재단 이사회의 감독선임과 검증시스템 부재로 가짜작사 신장아를 예술감독으로 뽑아 창설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신장아 사건을 계기로 재단은 연구기능 부재의 이사회를 보완하는 정책연구실(이하 연구실)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시의회, 문화, 경제, 여성 등 직능별 이사 수가 25명이나 되지만 비엔날레의 싱크탱크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재단이 추진하는 연구실 위상을 보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 듯하다. 말 그대로 연구실이 재단의 핵심브레인이 되려면 이사회 수준의 독립적인 기구로 키워야 한다. 연구실이 철저한 연구중심의 기능이라면 이사회는 연구실이 도출한 의견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특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명칭을 줄이고 연구실의 몸집을 불려야 하는데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 초 재단은 유능한 연구원 영입을 위해 5~6명의 인원과 그에 걸맞은 과격적인 대우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사회를 거쳐면서 재단 5급(일반공무원 8급)으로 강등됐다. 연구실 인원도 2~3명으로 크게 줄었다. 적은 인원으로 감독선임 등의 막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게다가 열악한 대우에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실 문을 두드릴지 의문이다.
혹여 '그렇고 그런' 인물들을 뽑아 연구실 기반을 내걸 생각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이를 위한 연구실은 허물어 마땅할 '옥상옥(屋上屋)'을 예서 짓는 격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banner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like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무등극장', and '제일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